



2007년,
정해년을 보내며...

16

23 12.1

24

지난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모두 단결로 오리산업발전에 매진합시다!

추운 날씨에도 오리산업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 어느새 순탄 치만은 않았던 정해년 한 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아해보면 작년 11월, AI발생 이후 국내 오리 산업은 소비감소와 질병 확대를 막기 위한 살처분 등 직. 간접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 올해도 여전히 우리 오리 산업 종사자들을 위협하고 있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FTA 타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 EU FTA 협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오리 산업의 최대 경쟁대상인 중국 역시 자유무역 협상을 제의하고 있어 우리 오리 산업을 비롯한 농축산업의 주권을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금년 들어 대만산 냉동오리와 중국산 훈제오리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오리 산업 종사자들은 경쟁력 강화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오리고기 생산을 위해 부단한 자기계발과 함께 협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리 산업도 과거 방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만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품질 좋은 오리 사육을 통한 생산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수 종오리의 안정적 공급과 종오리 등록제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국내에서 품질 좋은 종오리를 생산하기 위해 GPS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에서 수입하여 사육하고 있는 종오리 품종에 대하여 생산성과 번식 능력 등의 검정을 위해 수출 회사로부터 각 300마리의 종오리를 확보, 축산과학원과 공동으로 비교 시험사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회원님들의 참여로 오리자조금 사업을 시작 하였습니다.

우선 작은 규모지만, 오리고기의 영양우수성과 수입 오리고기와의 차별성을 소비자들에게 중점 홍보하여 소비확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는 라디오 방송 광고와 서울 지하철 포스터 광고를 시작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자조금 사업을 금년보다 100% 확대, 국내산 오리고기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회원 교육을 통한 우수 오리고기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에도 자조금 사업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정해년에 이어 다가오는 무자년에도 오리산업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 회원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합니다.



사) 한국오리협회장 김만섭